사진으로 본 자승 대종사 발자취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11월 27일 원적에 들었다.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지낸 자승 스님은 제10·11·12·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종단 입법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제14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서 종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종단 안정과 대사회 소통을 이어갔다. 퇴임 후에는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비롯해 불교 중흥·국난극복 자비순례, 삼보사찰순례,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이끌며 새로운 전법수행을 내보였다. 또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창립하고 '대학생 전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자승 대종사가 보인 삶의 여적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13년 11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자승 스님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공심·원력으로 종단 안정·사회 화합 견인



자승 스님이 제33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지관 대종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당선 직후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직후 용산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자승 스님.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자승 스님이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불자선수단을 격려한 자승 스님.



2014년 4월 18일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과 함께 전북 완주 순례에 나선 자승 스님.



2014년 자승 스님과 종단지도자들이 청계천 전통등 전시 개막 점등에서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